



수입물가, 생산자물가 하락세 지속

채원영 연구원

- 2012년 7월 수입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.0% 하락하였고 수출물가는 2.2% 상승하였음.
 -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.8% 하락하였는데 이는 중간재와 자본재, 소비재 수입물가가 각각 전월대비 1.7%, 2.0%, 3.0% 하락하였기 때문임.
 - 전월대비로 수출물가는 1.3% 하락하였는데 농림수산물과 공산품이 각각 전월대비 0.5%, 1.3% 하락하였기 때문임.

- 2012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.5%(전년동월대비 0.1%) 하락하였으며 금속, 석유, 화학제품 등 공산품 가격 하락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.
 -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생산자의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임.

- 향후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기준금리 인하, 국제곡물가격 상승, 전기료 인상, 국제유가 상승 등은 물가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
 - 수출입물가는 생산자물가의 선행지표이고, 생산자물가는 1~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므로 해당 기간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.
 -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은 가공식품에는 5~10개월, 외식비에는 4~8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타남.¹⁾
 - 또한,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물가 상승은 올 연말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.
 - 따라서 국제곡물가격 상승,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겹치는 올 연말에는 전기료 인상,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 등이 더해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

(2012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, 한국은행, 8/14 외)

1) 한국은행(2012. 8. 9). 「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」.